

안양성결교회,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감사예배

교회를 위해 헌신할 32명의 새 일꾼 세워



안양지방회 안양성결교회(강대일 목사)가 지난 5월 17일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32명의 새로운 직분자를 세웠다. 이날 예배는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수많은 성도들과 하객들이 참석해 임직자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1부 감사예배는 안양지방회장이 이승근 목사(예우리교회)의 사회로 시작됐다. 회개 이찬영 목사(좋은나무교회)의 기도 이어 104회기 총회장 홍사진 목사(주찬양교회)가 '착하고 충성된 일꾼' (마 25:20~21)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의 자세와 직분자의 조건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가득하여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2부 임직식은 담임 강대일 목사의 집례로 엄숙하게 거행됐다. 임직자들의 엄숙한 서약 후 8명의 안수위원들의 안수례가 이어졌다. 이날 임직식에서는 안수집사 5명, 시무권사 2명, 협동권사 2명 등 총 32명이 직분을 받았다. 집례를 맡은 강대일 목사는 이들이안

양성결교회의 안수집사와 권사가 되었음을 성도와 하객들 앞에 공포했으며,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임직패와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

지방회 부회장 김진도 목사(참빛누리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3부 축하 순서에 서는 조병창 원로목사가 임직자들을 향해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고단 총무 권순달 목사가 축사를 통해 기쁨을 나누었다. 이날 행사는 총회장 홍사진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쳤다.

다음은 임직자 명단.
 ▲안수집사(5명): 김정민, 김준혁, 김태준, 전수호, 주모세
 ▲시무권사(25명): 강권택, 강정숙, 김경순, 김은경, 김태환, 고영순, 고은주, 나윤경, 노명섭, 박미경, 박상순, 박수연, 박신정, 박혜수, 백미, 성경숙, 이승주, 오미숙, 장영숙, 장혜규, 전미영, 최순철, 최윤정, 최현, 한숙희
 ▲협동권사(2명): 구자순, 정찬용
 안양지방회주제기자 엄영호 목사



안양지방회, 반월호수서 '봄나들이' 개최 목회자 간 화합과 영적 재충전의 시간 가져

안양지방회(회장 이승근 목사)가 지난 5월 5일, 경기도 군포시 반월호수 일대에서 '목회자 봄나들이' 행사를 개최하고 지방회 소속 목회자들의 화합과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1904년 설립되어 12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둔대교회에서의 예배로 시작되었다. 둔대교회는 초기 선교사들의 순회 전도와 초기 신자들의 헌신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상징적인 곳이라 그 의미를 더했다.

1부 지방회장 이승근 목사의 설교에 이어, 2부에서는 이찬영 목사(좋은나무교회)의 사회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었다. 목회자들은 동심으로 돌아가 함께

웃으며 걸음을 다졌으며, 이어지는 축복권 추첨을 통해 풍성한 선물을 나누는 등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후 참석자들은 점심을 함께하며 교제를 나누었으며, 식사 후에는 반월호수 둘레길 약 1시간 코스를 산책하며 자연 속에서 담소를 나누었다. 행사는 인근 카페에서 다과를 나누며 즐거운 대화 속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회장 김진도 목사를 비롯해 오호섭 목사, 이찬영 목사가 기획과 준비에 구슬땀을 흘렸으며, 부회장 유희근 장모의 기쁜 후원 덕분에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안양지방회주제기자 엄영호 목사

안산지방회, 교역자 부부와 가족 춘계 아우회

"화합과 교제를 통해 하나 되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



안산지방회(회장 안현자 목사)는 지난 5월 12일(화) 가평에서 교역자 부부와 가족들의 아우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방회 소속 30여 교회 가운데 26개 교회가 참석한 교역자 간 화합과 교제를 통해 하나 되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다.

이번 아우회는 가평의 대표 음식인 육전 막국수를 맛나게 먹고 아름다운 5월의 초록을 뽐내내는 제이드 가든에서 가벼운 산행과 함께 시작되었다. 제이드 가든의 곳곳을 누비며 5월의 초록과 함께하다 보니 어느새 이마에는 작은 땀방울들이 송글송글 맺혔고 하산길에 만난 카페에서는 시원한 음료와 함께 이야기

꽃이 반발하였다.

이후에는 가평 레일바이크에 몸을 싣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모두가 행복의 폐단을 구르며 행복한 투어의 시간을 가졌다. 마음껏 웃고 소리치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고 우리 일행은 솔뚜껑 만난 닭을 만나서 든든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방회장 안현자목사는 "지방회의 모든 선, 후배 목사님들이 더욱 믿음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안산지방회가 자랑스럽다"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산지방회주제기자 고희택 목사

창신성결교회, 헌아식 및 축하금 전달식 진행

"다음 세대는 교회의 소망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생명"



서울지방회 창신성결교회(석진성 목사)는 지난 아버지주일 예배 가운데 헌아식과 축하금 전달식을 진행하며 성도들의 축복 속에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교회는 방형우 집사와 육지혜 집사 가정의 둘째 아이인 방우림 아기의 헌아식을 거행했다. 헌아식은 부모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아이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창신성결교회는 올해부터 젊은 세대 가정을 격려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의미로, 헌아식을 하는 가정에게

축하금 100만 원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역시 방우림 아기 가정에 축하금 전달식이 함께 진행돼 성도들의 따뜻한 박수와 축하를 받았다.

담임 석진성 목사는 "다음 세대는 교회의 소망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생명"이라며 "교회가 젊은 가정들과 함께 기도하며 아이들의 믿음의 성장을 돕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창신성결교회는 앞으로도 다음 세대와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나누는 데 힘쓸 계획이다. (창신교회 제공)

삽교중심교회, 담임목사 위임감사예배

능력교회 36주년 기념교회... 김영주 목사 파송



충서지방회 삽교중심교회가 5월 16일(토) 오전 11시, 담임목사 위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삽교중심교회는 능력교회 36주년 기념교회로 합병되어 선교공동체에 소속된 교회로, 이번에 김영주 목사가 능력교회에서 파송 받아 위임하게 되었다.

이날 1부 예배는 유 신 목사(부회장, 신암교회)의 사회로 시작됐다. 박상빈 목사(신감찰장, 시랑교회)의 기도, 고영준 목사(서기, 흥성중앙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박동능력교회 세소폰 찬양대의 은혜로운 특송이 더해졌다. 이어 이동석 목사(전 총회장, 북동능력교회)의 임직자 디모데후서 4장 1절-2절을 본문으로 '세상이 열 번 바뀌어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다. 1부 예배는 정기

영 목사(회계, 물면동신교회)의 봉헌기도로 마무리됐다.

이어진 2부 위임식은 순서진 목사(지방회장, 미당교회)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명선 목사(예산감찰서기, 동신교회)의 위임자 소개 후, 이동석 목사의 파송장 전달이 있었으며, 위임 목사와 성도들의 서약 후 지방회장의 공포가 엄숙하게 진행됐다.

축하의 시간에는 김명수 목사(전 회장, 금마중앙교회)의 권면과 석현민 목사(전 회장, 늘푸른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위임받은 김영주 목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답사를 전했다. 유희용 목사(신암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위임식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충서지방회주제기자 황충만 목사

나누리교회, 입당 및 임직감사예배

"모든 임직자는 사랑과 섬김으로 부르심 받은 자"



서울중부지방회 나누리교회(송종삼 목사)는 지난 5월 10일(주) 오후 4시에 입당 및 명예장로, 명예권사 추대와 안수집사 임직 감사예배를 은혜 가운데 거행했다.

1부 감사예배는 광명감찰장 조남영 목사의 사회, 지방회 부회장 이종화 목사의 기도와 지방회 서기 고평희 목사의 성경봉독(골로새서 3:12-17), 자마르의 특별찬양(사백) 후, 지방회장 이규명 목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특히 예배 중에는 지금의 아름다운 성전에 입당하기까지 교회 건축을 위해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두성 목사에게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가 마련되어 큰 감동을 더했다.

이어진 2부와 3부 예식에서는 이규현 권사가 성도들의 기쁜 마음을 모아 명

예장으로 추대되었고, 박만순, 이미경 집사가 그간의 아름다운 수고를 인정받아 명예권사로 추대되었다. 또한 김종문, 허정범 집사가 신임 안수집사로 새롭게 세움을 받았다. 이번 임직식은 나누리교회 송종삼 담임목사와 앞으로 든든하게 동역할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컸다.

4부 축하와 권면의 시간에는 평강교회 유선호 목사의 축사, 양의문교회 이광원 목사의 권면, 운양교회 이상화 목사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회회기도를 맡은 사람의교회 이두성 목사는 "제가 대표로 감사패를 받았지만, 아름다운 성전에 헌신한 수고와 있었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이두성 목사의 회회기도로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서울중부지방회주제기자 고명희 목사

베들교회 창립감사예배... 창립자 고은비 목사

'초대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자'



경북지방회 베들교회가 지난 5월 3일(주일) 오후 5시에 창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경북감찰장 윤규진 목사(분경신은교회)의 사회로 1부 예배, 2부 창립예식 순서로 진행되었다. 1부 예배에서 지방회장 최정규 목사(군위부성교회), 최종화 목사(돌단교회), 최기수 교수(성결대학교) 구약학 명예교수의 권면과 김경수 목사(성결한교회), 권오봉 목사(대구신은교회)의 축사로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며 축하했다.

경북지방회주제기자 이상우 목사

이어진 2부 창립예식에서는 지방회장의 질문에 베들교회 담임목사 고은비 목사와 교우들이 "죽기까지 교회를 지키겠다"는 엄숙한 서약으로 큰 울림을 주었다. 그리고 오신종 목사(대구중흥교회), 최종화 목사(돌단교회), 최기수 교수(성결대학교) 구약학 명예교수의 권면과 김경수 목사(성결한교회), 권오봉 목사(대구신은교회)의 축사로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며 축하했다.

경북지방회주제기자 이상우 목사